순창군 출산 정책 '주목'

2016년 254명으로 신생아수 증가 · 합계출산율 개선도 부분 전국 3위

순창군이 지난해 전북지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신생아수가 증가하면서 군의 출산 정책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2015년 186명이던 신생아수가 지난해에는 254명으로 68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 148명까지 내려갔던 신생아가 2015년 186명, 2016년 254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해 군의 출산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순창군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이 2014년 1.144명에서 2015년 1.475명으로 0.331명 증가해 개선도 부분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공식 통계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또 전라북도 인구가 186만 4천 791명으로 1년새 4천 920명이 감소하고 지난해 10개월 동안 출생아가 전무한 면지역이 전국에 16개면이 속출하는 인구절벽 현실에서 순창군의 신생아 수 증가 이유는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순창군은 아이 낳기 좋은 순창을 군의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군은 첫째아이 출생시 300만원, 둘째는 460만원, 셋째는 1,00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1,500만원을 지원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돕고 있다.

또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임산부 이송비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제공을 통해 출산을 유도하고 육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군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순창군운동본부를 결성해 민간차원에서 아이 낳기 운동을 추진하고 신생아 출산 시 지역신문에 축하 기사를 게재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민간네트워크도 강화했다.

또 최근 터미널과 강천산 휴게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해 산모들이 지역사회에서 맘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마련에도 공을 들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아동복지시설 'A' 등급

고창행복원 · 요엘원 · 희망샘 학교 3개소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고창행복원', '요엘원', '희망샘학교' 등 아동복지시설 3개소 모두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고 16일 전했다.

특히, 요엘원과 희망샘학교는 6개 평가 모든 영역에서 'A'등급을 받아 전체 아동복지시설 중 상위 10% 안에 드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전국 아동복지시설 28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편의시설의 적절성 등 시설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와 관계 등 6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는 총 3단계로 이뤄졌으며 1단계 시설자체평가를 거쳐 2단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의 현장평가, 3단계 최종확인평가로 진행됐다.

평가 후 우수시설에 대한 시상은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에 있을 예정이며, 시상금도 함께 지급된다.

고창군 아동복지시설은 그동안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그 공적을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한편, 고창군은 양육시설 2곳, 보호치료시설 1곳에서 150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 소식통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호응'

저소득층의 헌집을 새집처럼 고쳐주는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은 올해도 1억2천 만원을 투입해 지속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의 자가 주택 중 노후·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거주자의 안전, 건강과 위생, 생활불편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중심으로 건축허가가 필요한 개축 및 대수선 공사를 제외한 개량·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2억5천여만원을 투입해 63호의 개·보수 공사를 실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1억2천만원을 확보하고 30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붕개량, 벽체·천정 등 구조보강, 보일러, 난방공사, 화장실·주방 등 위생설비, 문·창호교체, 타일 및 방수공사 등을 실시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체계적 재난통합시스템 도입

재난예 · 경보 · 홍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임실군이 재난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체계적인 재난통합시스템을 도입한다.

16일 임실군은 신속한 재난상황과 재난예방 정보 공유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재난예·경보시스템과 홍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6억원이며,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시설 확충에 투입된다.

군은 재난상황에 대비한 주민들의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앰프와 댁내방송을 연계하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5개 마을 120가구에 설치한다.

또한 작년부터 추진 중인 홍수통합관리시스템도 올해 마무리한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기존에 분산돼 있는 재난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다.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는 통합대응 시스템이다. 기습적인 홍수 등 재난을 대비해 하천의 수위를 수시로 체크하는 재난감시카메라와 함께 재해위험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수위경보 시설도 설치한다.

심 민 임실군수는 "이번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마련되면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실 전체에 체계적인 재난·안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임실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 고구마, 육성 품종 확대생산 추진계획 수립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 고구마'의 브랜드화에 노력하고 있다.

군은 고창 고구마 브랜드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고구마 조직배양묘 생산시설을 구축해 2015년부터 고구마 재배농가들에게 조직배양묘를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해 주고 있다.

군은 올해 관내 외래품종을 국내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립식량과학원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국내 육성 품종 확대 생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 육성 품종 확대생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개발 우수 품종인 호감미 조직배양묘와 종자를 농가에 보급해 고창에서 실증 시험재배 후 생산자 조직을 결성, 면적을 확대하면서 고구마유통업체와 농촌진흥청과 연계 브랜드화 할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 이영희 원장과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고창군 아산면에서 직접 재배한 고구마를 이용해 가공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성규 농가에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인 고구마말랭이와 맛탕 등을 만들어 소득을 높이고 있는 농가에서 고구마 재배 등 운영 상 어려운 점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고 의견을 들으며 고창 고구마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민원봉사대 운영

남원시는 희망 나눔 실천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오지마을 소외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그늘진 곳까지 세세히 살피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120 민원봉사대'를 운영한다.

이에 "120 민원 봉사대"는 16일 이영태 시민소통실장을 비롯한 120 현장민원 봉사 대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보절면 개신 마을에서 봉사행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13세대의 노후화된 전기 수선 등 34건을 정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고객감동 현장 행정에 기여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민선 6기 공약사업 이행율 96.7%

순창군이 민선 6기 공약사업 이행율 96.7%를 기록하며 군민과의 약속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1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장명균 부군수를 비롯해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소관 실과장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민선 6기 공약추진상황 평가 및 변경사항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해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공약이행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 내용에 따르면 군은 현재까지 총 8개 분야 44개 공약사업 중 19개 사업을 완료했고 23개 사업은 추진 중인 걸로 보고됐다 정상 추진율은 95%이상으로 높은 추진율 나타냈다.

1개 사업은 미착수 중이고 1개 사업은 폐기됐다. 국도 21호선 개량사업은 지난해 국가예산 확보에 성공하지 못해 사업이 착수돼지 못한 상황이다. 군은 올해 국도 21호선 개량사업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폐기사업은 취약전 아동 야간보육센터 확대운영 건으로 예산문제로 지난해 상반기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 시 폐기를 결정했다.

이날 상정안건은 다문화 자료실 변경건 이었다. 애초 다문화 자료실은 청소년센터 작은 도서관을 변경해 다문화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 사업이었으나 문체부 차원에서 사업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군은 신규 조성중인 작은 도서관 시설 일부를 보완해 다문화자녀 공부방으로 활용하기로 변경안건을 상정해 통과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부서별 맞춤 컨설팅 실시

임실군은 성과중심의 공정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표 및 이행과제 방향 설정과 개발을 위한 부서별 맞춤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 3명을 비롯해 19개부서 팀장 및 팀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일과 16일 1, 2차로 나눠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됐다.

올해 주요업무계획과 성과지표(이행과제) 연계방안, 민선6기 공약사업과 성과지표(이행과제) 연계방안 등을 비롯해 연구 및 발전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1대1 맞춤형 컨설팅과 부서별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해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문의 288-9700